

한국문화교류 소식

29호 2018년 9월 15일 발행·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사무실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711호(내수동,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한중 수교 26년이 남긴 과제

조선족사회와 좋은 관계 맺기



곽 승 지

연변과기대 교수, 정치학 박사

대한민국은 탈냉전체제라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즈음해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26년 전의 이 역사적 사건은 동북아시아에서 질서 변화를 추동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도 민족에 대한 범주를 확대

하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를 초래했다. 당시까지 적대국가의 공민이라며 애써 외면했던 조선족동포들과 본격적인 관계 맺기를 시작함으로써 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족동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표피적이었으며 관련된 정책 또한 미미하기 그지없었다. 이른바 북방정책 차원에서 서둘러 한중 수교를 단행했지만 한중 수교 후 조선족동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마저도 정리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조선족동포들이 한국사회를 향해 불만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인정투쟁'을 전개하고 나서야 그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졌다.

정책의 부재와 사회적 홀대가 이어진 그 기간 동안 조선족동포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과 미움

‘조선족 80만 시대’에 조선족동포들이

세력화하고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고질화된 갈등 관계가 아니라

생산적인 상생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을 확대 재생산했다. 2007년 방문취업제가 생긴 후야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한국 방문이 용이해졌다. 이후 일련의 노력으로 이제는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렀지만 조선족동포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은 여전해 보인다. 아마도 관계 맺기 초기에 쌓인 불만과 미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조선족을 폄하하는 영화가 제작되는 것에서 보듯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 그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안타까운 것은 전체 조선족동포들 중 40%가 넘는 사람이 한국서 생활하는, 이른바 ‘조선족 80만 시대’ 운운하는 지금도 한국사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조선족동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다. 그들의 부정적 인식이 악의적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대개는 조상들의 나라인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한국사회를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일부 인사들은 조선족사회의 부정적 요소들을 모두 ‘한국 탓’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한중수교

26주년, 아니 조선족동포와 본격적인 관계 맺기가 시작된 지 26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지나친 기우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면 한국사회와 조선족사회 간의 관계가 갈등적이라는 것은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필자는 2009년에 행한 한 연구에서 두 사회가 중상 정도의 갈등적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조선족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언급한 바 있다. 그로부터 9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은 다소 나아진 듯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갈등의 폭은 좁아졌지만 깊이는 더 커진 듯 한 느낌도 있다. 그로 말미암아 조선족동포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좋은 관계 맺기를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 중에서도 관심을 줄이거나 일정하게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두 사회의 관계가 구조화되고 고질화된 갈등으로 고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마저 든다.

어쩌면 그 같은 상황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조선족동포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세력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선족동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살아가는 대림동의 조선족집거지 상가의 권리금은 이제 강남지역보다 비싸다고 한다.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지의 조선족동포들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당국도 한국 내 조선족사회가 확대되자 이들을 범화교화하려는 신화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족 80만 시대’에 조선족동포들이 세력화하고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고질화된 갈등 관계가 아니라 생산적인 상생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과 한국사회가 먼저 진심을 다해 조선족동포를 포용하며 이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민족 주

류사회라는 점과 함께 관계 맺기 초기에 준비를 소홀히 해 갈등을 잉태케 한 원죄(?) 때문이다. 물론 조선족동포들도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한국인 및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관건은 이 같은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하는 점이다. 모든 것이 그렇듯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사회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조선족사회와 함께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조선족사회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량이 커졌다는 점에서 양측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이 역시 한국사회와 조선족사회 간의 좋은 관계 맺기를 바라는 사람(단체)들이 젊어지고 가야 할 당면한 과제이다.

□□□□□□



대림동 조선족 거리 모습

영국에서 싹 틔우고 있는 뿌리 깊은 나무들



정 경 선

영국 레딩한글학교 교장, 주영교육원 소속 한국어 강사

현재 영국에서는 런던을 비롯하여 레딩, 옥스포드, 브리스톨 등의 지역 13개 초·중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한국어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한국어 강의는 주영교육원의 한국어 보급 정책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나는 4개의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다. 제2외국어라 하면 불어와 독어, 스페인어를 먼저 생각하는 영국에서는 아시아계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낮지만 최근 몇 년 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류 및 K-pop이 좋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 대다수이지만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한

국어 반에 들어왔다는 친구도 있다. 또한 머나 먼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라는 학생도 있으며, 한글의 독특한 구조가 흥미를 갖게 했다는 학생도 있다. 이렇듯 한국어 반에 들어 온 이유는 다채롭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수업이 진행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어진다는 것이다. 때로는 한국인인 내가 보기에 너무나 무조건이다 싶을 정도로 호감을 보이기에 가끔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어 보고는 한다. ‘한국의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도무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그냥 다 좋아요.’라고 말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답변은 나에게 큰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 학생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싸이와 아이돌이 부르는 K-pop이나 한류가 한국 문화의 전부가 아니며, 빛의 속도로 빠른 인터넷 통신망만이 현대화된 한국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보이는 것들 그 너머에 오랜 세월 간 한국 사람들이 지키고 발전시켜 온 한국의 미와 가치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한국 문화에 대한 바른 소개일 것이고, 나아가 한국어에 대한 학습 열의를 높일 수 있는 동기 부여일 것이라 생각했다.

문화라면 요리와 예술을 빼놓을 수 없기에 나는 매 학기마다 한식 요리 수업과 전통 공예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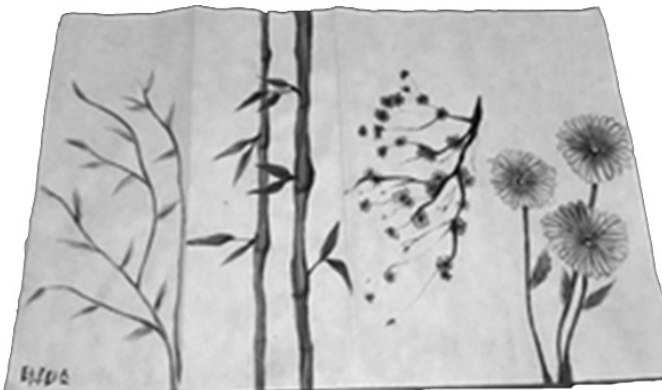


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다. 매 학기 진행되는 한식 요리 수업은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수업이다. 1학기 부침개 요리 수업을 시작으로, 2학기에는 비빔밥 만들기, 3학기에는 잡채 만들기 수업을 진행한다. 한식 요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김치를 냄새 때문에 꺼려하는 영국 학생들조차 막상 김치전을 만들어 먹어 보면, 김치 파는 곳이 어디인가를 물을 만큼 좋아하게 되고, 야채 부침개를 먹어 본 학생들은 밀가루와 야채의 단순한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하고 맛있게 요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비빔밥은 또 어떨까? 조화롭게 놓인 각색의 나물을 보며, 야채를 싫어하던 학생들은 ‘새로운 맛’에 놀라고, 채식주의자인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딱 맞는 음식이라고 반가워한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고기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고기 고명을 뺀

비빔밥은 그야말로 한국의 맛을 소개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한 그릇 요리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잡채까지 소개하고 나면, 그들은 한식의 다양한 재료들과 건강을 생각한 조화로운 요리법에 감탄을 한다. 더구나 어렵지 않은 요리법을 익혀서 집에서 다시 해보는 것은 물론이다. ‘한식을 한 번도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고 다시 안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 만큼, 맛과 영양을 품은 조화로운 한식 요리 수업은 생활 속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첨병이라 부를 만하다.

한국어 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하나의 활동은 전통 문화 소개 및 공예이다. 붓펜으로 서툴게 써보는 서예부터, 매난국죽의 사군자를 그려보는 한국화 그리기, 부채 꾸미기부터 한지 공예까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는 은은하고 고고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학생들이 붓을 놀릴 때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며, 한지 한 장을 다룰 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화선지와 한지, 붓과 부채 등은 단순한 문구가 아닌, 멀고 먼 한국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재료들이기 때문이다. 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묵화와 서예 작품들을 소개하면 학생들은 단순한 듯 보이는 글과 그림 속에 들어 있는 깊이 있는 문구에 놀라고, 검은



먹물 하나로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에 새로운 눈을 뜬다.

또한 대다수 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 K-pop이었던 만큼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수업 자료로 활용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군무가 멋있어서, 잘 생겨서 한국 가수들을 좋아하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고, 노래에 담긴 한국의 정서를 느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무척 흥미롭다. 한국인의 정조가 말이 다른 외국인에게도 들릴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좋은 것은 어디서나 통하는 것일까?

첫머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국에서의 한국어 수업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역사 역시 길지 않다. 그야말로 10여 년 간 조용히 뿌려 온 씨앗들이 이제야 막 싹을 틔우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싹들이 건실히 자라 굳건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물과 자양분을 주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바로 이해하게 돕는 것이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울 수 있는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를 흥미 있게 소개하기 위한 고민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 



‘2018 제주세계평화걷기축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성료

— 세계태권도연맹,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자선 걷기 행사 공동 주최

‘2018 제주세계평화걷기축제’ 행사가 2018년 7월 17일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성공리에 열렸다. 제주해변공연장에서 열린 개막식과 이어서 용두암까지 걷는 이번 자선 걷기 행사는 세계태권도연맹과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이 공동 주최했고, 제주태권도협회, 밝은사회 제주중앙클럽 그리고 2018제주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자선 걷기 행사에는 18일 개막하는 ‘2018제주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선수 임원을 포함 수 백 명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걷기 대회 참가자는 의무 사항은 아니었지

만 1만원의 참가비를 내었으며, 실 경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은 저개발국 고아, 소년원생, 자연재해 피해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태권도 무상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해변공연장에서 열린 약 30분의 개막식에 이어, 대부분 참석자들이 용연 구름다리를 지나 용두암까지 2.3km의 해변 걷기 코스에 동참했다.

개막식에서는 주요 내빈 소개에 이어,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 케어스’ 총괄 전문위원이 세계태권도연맹의 자선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했다. 개막식 말미에 평균 나이 80이 넘는 약 40명의 제주도실버태권도시범단의 시범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2018 제주세계평화걷기축제’ 참석자 단체 사진

개막식 행사에는 태권도계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이자 ICKC(본회) 총재인 조정원 총재,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문성규 제주태권도협회장 겸 2018제주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장, 정국현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김인선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그리고 신임 우즈베키스탄태권도협회장과 신임 오양평 대만태권도협회장 등이 참가했다. 밝은사회클럽 측에서는 심호명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총재, 밝은사회 제주중앙클럽 신진호 회장, 허중 GCS국제본부 부총재, 한승연 GCS국제본부 이사 등이 참가했다. 또한 국기원 공인 5단인 여수 청암사 지암 스님도 행사에 참석했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개막식 대회사에서 “오늘 이 자선 걷기 행사에 2018제주코리아오픈에 참가하는 많은 선수 임원이 함께 자리해 주어서 너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 총재는 “세계태권도연맹은 인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전 세계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태권도 자선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연맹 자체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과 스위스 로잔에 본부가 있는 국제 자선 NGO 단체인 ‘태권도박애재단’ 그리고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를 위시한 다른 국제 NGO 단

체와 손을 잡고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권도는 격투기 종목이지만, 여기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는 태권도가 우정과 세계 평화의 스포츠이다”라고 조 총재는 밝혔다.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이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과 ‘태권도박애재단’을 운영하는 등 태권도 스포츠를 통해 인류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하며 “인류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저개발국 난민, 고아, 자연재해 피해자를 위한 태권도 무상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자세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높게 평가 받고 있다”고 최 회장이 말했다. 심호명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총재는 축사에서 “밝은사회클럽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세계태권도연맹과 함께 매년 이러한 자선 걷기 행사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러 내빈들의 환영사 및 축사가 이어진 뒤, 개막식 마지막 순서로, 김인선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한승연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이사, 신진호 밝은사회클럽 제주중앙클럽 회장이 우즈베키스탄 여자 선수 2명과 네팔 여자 선수 2명과 함께 대회 슬로건인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를 한국어 영어로 3창하는 슬로건 세레머니를 했다. 



제주세계평화걷기축제에 참석 중인
조정원 총재(앞줄 가운데)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초청 공연’

울산 일산해수욕장 공연장서 성공적 개최



저개발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인 ‘세계태권도연맹 초청 시범 공연’이 8월 16일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해수욕장 상설공연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밝은사회 국제클럽(GCS International) 한국본부 영남지구가 주최하고, 밝은사회국제클럽 국제본부 및 한국본부 그리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울산소속 태권도장의 관장들과 학생, 그리고 동구 시민들 포함 약 500명 이상이 참가했다. 하루 종일 내린 폭우가 시범 공연 시작 2시간 전에야 멈춰서 주최 측이 행사 강행을 결정했다.

저개발국 고아, 소년원생, 자연재해 피해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태권도 교육지원 사업 후원의 성격으로 열리는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초청 공연” 행사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일산해수욕장 상설공연장에서 열렸다. 밝은사회에 대한 영상 자료와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30분의 시범단 공연과 초청 가수 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개막식 행사에는 윤창순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영남지구 총재, 허종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부총재, 그리고 한승연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이사 등이 참가했다. 2018 아시안게임 행사 참가차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및 ICKC 총재를 대신하여 허종 GCS 부총재가 개막식에서 축사를 했다. 조 총재는 “이번에 울산에서 자선 시범 행사가 열리게 되어 아주 기쁘며, 이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태권도 모국인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모금되는 모든 수익금은 저개발국 고아, 소년원생, 자연재해 피해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태권도 무상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밝은사회국제클럽(GCS) 국제본부는 1979년에 설립되어 서울에 본부를 두고 UN에 등록된 국제적인 NGO단체로서, 1981년 UN에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제안하여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9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한 GCS국제본부는 2016년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박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태권도를 통한 국제 자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GCS국제본부는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 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2018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안양서 개막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주최하는 ‘2018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개회식이 8월 18일 경기도 안양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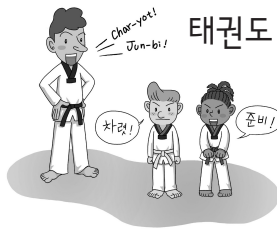
올해 캠프에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입양동포 24명과 그들의 초등생 자녀 26명을 본국으로 초청돼 오는 25일까지 7박 8일 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지난 해에는 독립국가연합 지역 고려인 초등학교 84명과 재일동포 초등생 99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들은 성인 입양동포와 그들의 자녀인 초등학생,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수준별 집중교육을 받으며 태권무, 판소리, 수묵화, 케이팝 댄스 등 그룹별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고 경복궁, 한옥마을 등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는 순서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친어머니를 찾고자 하는 동포도 있는데 1977년 네 살 때 프랑스에 입양된 캉드시 줄리베 씨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 낳아준 어머니를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서정필 기자, 2018/08/20





파란 눈 여든 할머니의 태권도 사랑... 광주태권아카데미 참가

‘2018 광주 국제태권도아카데미’에 80세 미국인 할머니가 참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7월 2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바바라 커닝햄(Barbara Cunningham) 할머니다.

바바라 할머니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국제태권도아카데미와 조선대총장배 국제태권도품새대회 참가자 중 나이가 가장 많았다. 바바라 할머니는 이번 태권도아카데미가 열리기 바로 직전인 지난 13일 남동생을 저세상으로 떠나보냈다. 할머니는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주저앉는 대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타 광주 국제 태권도아카데미에 참석했다. 품새대회에서 바바라 할머니의 힘찬 ‘정권 지르기’를 본 관중들은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바바라 할머니는 약 3년 전 태권도에 입문했다. 지난 2015년 3월 15일 호신술을 배우기 위해 뉴저지주 한인타운의 태권도장을 찾았고, 그 후 태권도에 매료돼 열정적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으며, 현재는 ‘검은 띠’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바바라 할머니는 2년 전인 2016년에도 ‘무주 제10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대회’를 참가해 품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바바라 할머니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 남동생을 잃어 비록 슬펐지만, 태권도를 통해 배운 좌절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으로 참가하게 됐다”며 “내년에 열리는 태권도아카데미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2018/07/27

■ 5월 문화탐방 실시 - 남산성곽·안중근기념관 등

지난 5월 24일(화), 5월 문화탐방으로 남산성곽 및 안중근의사기념관 등을 탐방하였다. 본 탐방 코스는 “서울도보관광” 코스의 하나로, 수표교·봉수대 등 조선시대 역사유적과 국립극장·남산서울타워 등 현대문화시설, 전통가옥과 정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남산골한옥마을, 남산 동쪽 기슭부터 정상까지 이어져 있는 한양도성길 등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하여 나라를 위하는 마음, 애국정신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했다.



■ 6월 문화탐방 실시 - 성균관 탐방

지난 6월 21일(목), 여러 회원과 함께 6월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성균관’을 탐방하였다. 인기 TV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조선시대의 국립대학이자 공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당인 성균관을 둘러보며 성균관 유생들의 생활과 이들이 생활한 공간, 그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가까이 있지만 쉽게 오지 못 했던 성균관 탐방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학습열을 실감하는 좋은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동숭동의 ‘장면 가옥’에 들러 광복 후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데 열과 성을 다했던 장면 총리의 업적을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2018 홍천 마리소리여름축전” 성황리에 마쳐

매년 여름 강원도 홍천 마리소리골에서 치러지는 “2018 홍천 마리소리 여름축전”이 올해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마리소리 여름 축전은 8월 18일(토),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우리 음악의 맛과 흥의 세계로 인도하였다. 올해는 국태민안 기원제를 시작으로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에서 어울사랑예술단, 감혜란 명창, 김희현과 아우름 등 국악과 재즈음악을 아우르는 멋진 공연이 펼쳐졌고, 이후 ‘여름밤의 추억여행’이라는 테마로 기타 및 여러 악기 연주가 이어졌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이 축전에 참석하였고, 매년 축전을 후원하고 있는 ICKC에서도 많은 회원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축제를 즐겼다. “마리소리 여름축전”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한국 전통음악 및 문화의 산실이 될 축제이다. 참석한 회원 여러분 및 멋진 자리를 만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주최 측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후원하여 주신 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명수,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영훈, 김용구, 김용준, 김정복,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지윤, 김진원, 김호일, 김홍석, 류성식, 문영호, 박경명, 박관용, 박미화, 박원출, 박익근, 배대환, 성효동, 손희정, 유영찬, 유자호, 윤윤식, 이대근,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항구,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상설,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한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최 광, 최춘이,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제)아시아발전재단, (주)포스젯한도, (주)P&H (가나다순, 2018년 1월 1일 ~ 2018년 9월 5일까지) **총액 : 43,250,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3.30. 총회 및 창립 7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前 ICKC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 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방송대 명예교수

부 회 장 김성진 前 한경대학교 총장
김재현 前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김옥랑 꼭두박질관 관장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서 혁 연구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종국 경희대학교 교수
이동민 한국IMS 대표
이종택 선진회계법인 대표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 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2000만원 이상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2018년 6월 29일, 우리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 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2년에 최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래, 이번에 다시 '재지정'된 것으로 명실공히 ICKC의 여러 사업과 활동이 주무관청 및 정부로부터 그 의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서 기부하신 후원금이 이전과 동일하게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더욱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문화의 진흥과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 : 2018.01.01.~2023.12.31. (6년간)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Asia Development
Foundation
아시아발전재단

나눔으로 더해가는
밝은 미래
함께 열어갑니다.